『창세기 27회: 창세기 25:1-26』

1. 아브라함의 죽음(25:1-11)

1-6절, 아브라함은 그두라라는 후처를 맞이합니다. 굳이 성경이 아브라함이 후처를 들였고, 많은 자손을 낳았다고 서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선물로 주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1] 아브라함은 그두라의 자손들에게 선물을 주어서 동쪽으로 보냈습니다. 동쪽으로 보낸다는 표현은 에덴에서 아담이 추방당하는 모습, 가인이 내쫓기는 모습과 겹칩니다.[2] 이삭은 유산을 받았고, 그두라의 자손들은 선물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두라의 자손들이 이삭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중입니다.[3]

7-11절, 일반적으로 족보라면, "아브라함이 175세를 향유하고 죽었더라"라고 마무리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기록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삶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4]

개역개정은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라고 번역했지만, 직역하면 "꽉 찬 해들을 살고"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마소라 본문은 '늙고 만족하여'). 오래 사는 것과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장수했을 뿐만 아니라 내적인 충만함과 만족을 깊이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꽉 찬 날들"과 "만족해서"라는 구절이 담고 있는 요점입니다.[5]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삶에 온전함이 있다고 약속합니다. 인간은 균형 감각이 부족해서 삶을 온전하게 사는 법을 모릅니다. 학업에 열중하다가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일에 매진하다가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20-40대에는 돈을 벌기 위해 애를 쓰면서 가정도 건강을 잃어버리고, 50대를 넘어가면 번 돈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깨어진 가정에서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안달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온전한 '샬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유일한

---

1) Kenneth Mathews, *The New American Commentary: Genesis 11:27-50:26*(Nashville: B&H Publishing Group, 2005), 권대영 역, 『창세기 2』(서울: 부흥과개혁사, 2019), 450.
2) Kenneth Mathews, 『창세기 2』, 453.
3) Allen P. Ross, *Creation and Blessing*(Michigan: Baker Book House, 1988), 김창동 역, 『창조와 축복』(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5), 633.
4) Gordon J. Wenham, *Genesis 16-50,* Word Biblical Commentary Volume 1(Texas: Word Books, 1987), 윤상문, 황수철 역, 『창세기 16-50』(서울: 솔로몬, 2006), 313.
5) Victor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8-50*(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5), 임요한 역, 『NICOT 창세기Ⅱ』(서울: 부흥과개혁사, 2018), 214.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지키라고 하시고, 쉬라고 하시고, 성경을 배우라고 하시는 것들이 그때에는 번거롭고 귀찮고 손해 보는 명령 같아도, 장기적으로는 언제나 가장 유익한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이삭은 브엘라해로이 근처에 거주하는 복을 받습니다. 브엘라해로이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났던 곳이고, 이삭이 리브가를 기다릴 때 묵상하던 곳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신, 기도의 장소에 거했습니다.[6)]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거합니다. 사람은 적절한 시기에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힘들게 살만한 공간으로 향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기도하는 곳,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곳에 늘 머무는 복을 구하십시오. 경제적으로 좋은 곳,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곳, 몸이 평안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기도를 더 할 수 있는 곳에 머무르는 것이 곧 복입니다.

2. 이스마엘의 죽음과 그의 아들들(25:12-18)

12-18절, 12절은 이스마엘의 족보를 설명합니다. 성경은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의 족보를 기록합니다.[7)]

이 단락은 족보와 이스마엘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족보는 열두 명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이 기록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큰 민족으로 만들고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음을 잘 보여줍니다.[8)]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에게 주신 약속도 신실하게 지키신다면,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에게 주신 약속은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족함이 없는 삶, 함께하심, 성령의 열매, 은혜와 평강은 확실히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두

6) Allen P. Ross, 『창조와 축복』, 633.
7) Kenneth Mathews, 『창세기 2』, 459.
8) Allen P. Ross, 『창조와 축복』, 637.

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3. 에서와 야곱의 출생(25:19-26)

앞에서 우리는 아브라함 아들들(2-4절)과 이스마엘의 아들들(13-15절)을 만났고, 이제 이삭의 아들들을 만납니다. 이삭이 낳은 아들은 둘입니다. 이 숫자는 이스마엘의 열두 아들과 비교할 때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스마엘 자녀 이야기는 몇 구절에 불과하지만, 성경은 25장 19절-36장 43절까지 이삭 자녀에 관한 이야기를 서술합니다.[9)]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들에게 세상에서의 위대한 성취를 주시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을 허락하시고 이야기를 만들어가십니다. 우리가 이땅에서 경험하는 최고의 축복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엄청난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듣고 믿은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기도한 내용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만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20-26절, 리브가의 상태는 그의 시어머니 사라와 유사합니다. 둘 다 임신하지 못합니다. 이 상황은 종이 적절한 신부를 데려왔는지에 관해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종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응답을 따라서 리브가를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불임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새로운 개입을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이 오랜 시간의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하갈과 동침한 것과는 달리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10)]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 기도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삭은 20년을 기다려서 아버지가 됩니다.

리브가의 태 속에서 두 아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직역하면 "그녀 안에서 아기들이 서로 밀쳤다"입니다. '라차츠'(밀쳤다)라는 단어는 폭력적인 충돌, 찌그러짐 등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실제로 상호간에 타격을 입혔습니다.[11)] 리브가는 당황하여 하나님께 질문하러 갑니다.

폭켈만이란 학자는 이 상황을 다음처럼 묘사합니다.

9)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Ⅱ』, 223.
10)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Ⅱ』, 225.
11) Kenneth Mathews, 『창세기 2』, 494.

"그들의 첫 번째 전쟁터는 어머니의 태이다. 자녀에 대한 달콤한 기대, 20년 동안 희망과 절망을 교차하면서 기다린 기대가 잔인하게 이삭과 리브가를 낙담시키는 중이다. 부모로서의 그들의 행복은 임신하자마자 위협받는 중이다. 리브가는 내가 어찌할꼬라고 절망 속에서 염려한다."(Fokkelman *Narrative Art*, 88)[12]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아들들이 싸운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25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전개가 이어집니다. 종은 이삭의 신부를 찾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리브가를 만났고 밧단아람에서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불임이었습니다. 이삭은 기도했고 리브가는 임신합니다. 하지만 두 아들은 태에서 싸웁니다. 리브가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대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문제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도, 늘 문제는 이어집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한 번 제대로 응답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로또처럼 신앙생활을 생각합니다. 한 번 큰 응답, 획기적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응답을 받으면 그 이후로는 만사형통이라는 식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로또가 아닙니다. 늘 식사를 하듯, 늘 문제가 있고, 그에 주어지는 말씀과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삶 자체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리브가의 태중에는 두 민족이 있으며, 이들은 민족의 조상들이며, 큰 아들은 둘째 아들에게 복종할 것이고 장자 상속권을 내어줄 것입니다.[13]

에서가 태에서 나왔을 때, 그는 붉고(아드모니) 털옷 같았습니다. 그는 붉었기 때문에 에서가 되었습니다. 둘째는 태에서 나왔을 때 에서의 발꿈치(아케브)를 잡았기에 야곱으로 불렸습니다. 형은 외모에 따라 이름을 지었고, 동생은 행동에 따라서 이름을 지었습니다.[14] 야곱은 '발뒤꿈치'(아케브)와 '속였다'(아카브)를 합친 단어입니다. 야곱은 발뒤꿈치는 잡는 자이기도 하고, 속이는 자이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가 발뒤꿈치를 공격했다는 것은 이 어린 아이가 사기꾼, 배신자, 기회주의자가 될 것을

12) Gordon J. Wenham, 『창세기 16-50』, 334.
13)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Ⅱ』, 227.
14)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Ⅱ』, 228.

암시합니다.[15] 성경은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60세에 얻었다고 강조하면서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손자를 볼 때까지 살았습니다.

※ 예정과 유기[16]

신약성경은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셨고,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롬 9:10-13)

하나님은 해당 사람의 행위에 근거해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불신앙, 죽음, 그리고 영원한 형벌까지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지 않는 것을 옹호할 수 있을까요? 세상 가운데에는 수많은 비합리적인 일들, 수많은 부당한 고난들,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재난들, 불공평하고 이해할 수 없는 운명, 기쁨과 슬픔의 비통한 대조가 존재합니다. 인생에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유로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인간의 의지가 그토록 절대적이어야만 합니까? 이런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염세주의자처럼 이 세상을 악한 신이 다스린다고 말하든지, 아니면 성경을 근거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을 감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어서 인간의 의지와 선택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재를 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신뢰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위로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얻는 위로는 이 모든 끔찍한 현실 속에서도 전능한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뜻과 다스리는 손을 신뢰할 때 얻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이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그의 판단을 알 수 없으며, 그의 길을 추적할 수

15) Kenneth Mathews, 『창세기 2』, 498.
16) Herman Bavinck, *Gereformeerde dogmatiek*(Kampen: 1895), 박태현 역, 『개혁교의학2』(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490-493.의 논의를 요약하였다.

없는 분 안에 안식하라고 권합니다. 칼빈은 이 지점에서 안식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양심이 증거하는 주님이 나의 증인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의 이러한 판단들을 매일 묵상하는 것이 나를 놀라게 하므로 그 어떤 호기심도 나로 하여금 알아야 할 어떤 것 이상을 알도록 동요시키지 못하며, 그 어떤 나쁜 의심도 그의 비교할 수 없는 정의에 대해 나에게 살며시 다가오지 못하며, 그 어떤 불평하는 욕망도 나를 전적으로 자극하지 못한다."

칼빈은 그러한 마음의 평정 가운데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하나님을 보고 이런 수수께끼들의 해답을 받는 날을 기다렸고,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